

'부송동 40층 주상복합' 62% 반대

임형택 시의원, '익산시민 긴급 설문조사'... 교통체증, 재난 취약,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이유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부송동 40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관련 익산 시민 긴급 설문조사'를 6월 29일(목)부터 7월 3일(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임형택 의원은 "부송동은 주거지, 상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주변 환경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긴급하게 시민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5일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익산시민 844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제시해주고 40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22명 38%는 40층 신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522명 62%는 40층 신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층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재난에 취약하다 69%, 주변지역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한다 43%로 높게 응답했다.

다른 이유로는 주변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34%, 초고층이 도시경관을 삭막하게 만든다 32%, 건강에 안 좋고 위화감을 조성한다 11% 순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주변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다 73%, 초고층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58%로 높게 응답했다. 또한 원스톱 생활서비스가 가능하다 23%, 전망이 좋아 소비층이 있다 22%, 토지 활용율을 높인다 17%로 집계되었다.

또, 시민들은 72%가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반대하는 시민들 91%가 이와 같이 응답했고, 찬성하는 응답자들도 40%가 의견수렴 선행에 동의했고, 찬성 응답자 48%는 익산시와 익산시 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거주지 분포는 삼성동·부송동 34%, 영동2동·어암동 28%, 그 외 동지역 33%, 그 외 읍면지역 5% 주민들이 참여했다.

남녀 비율은 비슷했는데, 찬성 응답자의 경우 322명중 72%가 남성으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 이상 각 33%, 23%, 22%, 10%, 5% 등이 참여했고,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 전문직, 주부, 학생이 각 27%, 21%, 16%, 15%, 11% 등으로 다양한

연령, 직업군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형택 의원은 "지나해 말 부송동 GS마트 자리에 지상 7층 상가 건물로 건축 확정되었던 계획이 3개월 만에 지상 40층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되어 시민들의 공금증이 많은 상황이다"면서 "익산시는 시민들의 요구대로 건축,교통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는 익산 부송동 GS마트와 백제웨딩홀을 허물고 그 자리에 지상 4층~40층 아파트 636세대, 지상 3층 상가시설, 지하 3층 주차장 계획으로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시는 4월말 경관심의를 1차례 진행했고, 7월 6일(목) 49명의 건축심의위원회 중 20명을 선정, 소집하여 '건축심의 및 교통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캐나다에 군산·새만금 알리기 매진

문동신 군산시장, 원저시 초청 방문 마쳐

문동신 군산시장이 6월 30일부터 시작된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지난 4일 밤늦게 군산에 도착했다. 문 시장은 3박 5일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토론토와 원저를 오가며 캐나다 사회에 군산과 새만금 알리기에 매진했다.

자매도시 원저시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캐나다 방문은 원저시 승격 125주년과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행사 참석과 캐나다 수변공간 개발, 도시지원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는 8월 30일 군산에서 개최되는 '2017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킹 대회' 홍보 등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군산시는 자매도시 원저시와의 우호교류 증진은 물론 캐나다 최대의 도시 토론토에 군산과 새만금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교류 확대, 수변개발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등 각 부문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 방문단은 조성용 캐나다한국 기업협회 회장과 면담, 원저시 한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캐나다 시장개척과 지역업체의 진출방안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구하고 군산시 교유의 도시 매력을 소개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으며, 원저시 한인회, 캐나다 한인여성회 그리고 조성준 윤타리오 주위원을 비롯한 토론토 한인 커뮤니티와의 간담의 시간을 가져 유대관계를 도모하고 시와 새만금 발전에 대한 교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군산=장 현 기자

해수욕장에 해경 구조대 배치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해경 구조대가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관내 선유도 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익수자 구조와 안전지도 활동을 위해 해상 구조대와 장비 일제히 파견, 배치했다"고 밝혔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해상 구조대는 지난 6월부터 현지 적응훈련과 장비 운용술을 익혔으며, 해수욕장 불가침 등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이수했다.

군산해경 관내 선유도 해수욕장의 경우 지난해 5만명의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해수욕장 시설 및 안전관리는 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수영 경계선 기준 내·외측의 입체적 구조 활동을 이유로 해양경찰이 해수욕장을 파견하고 있다.

해경은 매년 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백태종 해양안전과장은 "해수욕장 사고는 음주·야간수영 및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가 대부분으로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아이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를 때까지 눈을 떼지 말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주위에 빨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군산=장 현 기자

하수슬러지 처리 해법 '감량화 사업' 서 찾아

익산시, 내년 설계비 5억 국비 반영... 기존 소화조 개량 발생량 40%이상 감량

익산시는 지난 2014년 백지화 돼 표류된 하수슬러지 대책 해법을 친환경 녹색사업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서 찾고 총사업비 210억 중 2018년도 설계비로 국비 5억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은 2013년 소각 방식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중 소각으로 인해 알 수 없는 유해물질 발생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정을 17.3% 상태에서 2014년 12월 공사 계약이 해지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익산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널티로 지방교부세 113억 삭감 위기, 타질 준공된 시설물 활용 문제 및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했다.

정현을 시장은 취임 직후 하수슬러지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를 전액 반납해 시민들에게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신뢰 회복에 힘썼다. 특히 국비 반납 후 지방교부세 삭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근무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발 빠른 초기 대응과 1년 6개월에 걸친 끈질긴 부처 이해 설득작업을 펼쳐 올 상반기에 지방교부세 113억을 사수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최소화를 위해 적기에 변호사의 전문 감정인을 선임

하어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정척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들이 차차 해결됨에 따라 시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비 70%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소화조를 개량 또는 증설하여 유기물을 분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40%이상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으면서, 공사 중이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하수 소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수슬러지 정척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문제들이 차차 해결됨에 따라 시는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비 70%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소화조를 개량 또는 증설하여 유기물을 분해,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40%이상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으면서, 공사 중이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정현을 시장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안), 도 건축위 심의 통과

군산시는 근대문화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월명동, 영화동 일원(327,456㎡)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복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시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월명동, 영화동 일원은 건물 1,310여채 중 441동이 건축자산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우수 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은 상급 9동과 중상급 55동의 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산=장 현 기자

고성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극 촉매 개발

원광대-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 상용화 기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쓰일 '강력한 촉매'가 개발됐다. 연료전지가 작동하면 내부에 있는 전이금속을 꺼내 또 다른 촉매로 쓰는 물질로써 이 물질은 작용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간단한 방법으로 싸게 만들 수 있어 상용화에 성공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광대학교와 울산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재생 가능한 세계 최고수준의 고성능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전극 촉매를 개발했다. 원광대 화학융합공학과 주용원(사진) 교수는 울산과학기술원 김건태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용 연료극 소재를 개발해 지난달 말 네이처 커

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주용원 교수는 "기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연료극 소재들은 안정성·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개발된 연료극 소재는 장기 성능 안정성과 제조공정 단순화, 탄화수소를 직접 연료로 사용했을 때의 불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SOFC 상용화를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역**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